

지금 우리 절에서는 - 서울 강남 봉은사



서울 강남 포교1번지 봉은사의 전경.

강남포교 1번지, 자비나눔 1번지

봉은사, 중창불사와 함께 인재불사에도 나서

794년에 창건된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학)는 재적 신도만 15만여 명이 넘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 사찰이다.

최근 신심주지 원학 스님 취임을 계기로 봉은사는 내실을 다지는 한편 필리핀 태풍피해 돕기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봉은사는 '자비의 동전나누기' 행사를 통해 동전을 모아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계층 등에 전달해왔다. 2013년에는 2000만원을 모아 필리핀 태풍 피해 돕기에 사용했다.

새해에는 봉은사는 다양한 기도법회를 마련해 기도하는 사찰, 수행하는 사찰로 거듭날 계획이다. 먼저 '절기로 시작하는 가내길상발원' 임춘기도를 시작으로 동안거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42대원성취 천수다라니 기도, 학업원만성취 100일 관음기도, 자신을 돌아보는 자비도량참법기도 등을 진행한다. 학업성취기도 동참자를 모아 4월 경에는 적멸보궁 태백산 정암사와 사자산 법흥사를 찾을 계획이다. 각 법회마다 모인 기금은 자비나눔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봉은사의 이러한 행보는 재정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운영으로 신도들의 동참이 활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봉은사는 신도들의 봉사 및 수행 조직인 연등조직이 30여개 구성돼있다. 필리핀 태풍 피해 돕기에는 봉은사 신도회가 사찰측과 함께 자체적으로 모은 기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봉은사 신도회는 1월 18일 최정수 현신도회장을 재선출하고 신도회를 새롭게 출발시켰다.

봉은사는 이러한 신도들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2013년 서울시와 도시공원 지정에 따른 규제를 푸는 조례를 만들어 승통을 트 상황. 이런 불사에 앞서 중요한 것은 봉은사 앞에 개통 예정인 9호선 역 지정. 봉은사는 9호선 개통을 앞두고 '봉은사역' 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봉은사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봉은사가가람정비 및 전통문화재창조사업을 진행하여 도심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2~3월 캘린더

2월 4일까지	절기로 시작하는 가내길상 발원 임춘 3일 기도 회향
2월 8일까지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정초삼일 7일기도
2월 14일	동안거 해제 및 동안거 관음기도
2월 15일	관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아간기도
2월 18일	정월 방생법회
2월 24일	관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주간기도
3월 7일	연화대학 개강
3월 11일	사찰음식 강좌 개강(한정원)
3월 12일	53기 불교대학 개강
3월 14일	6기 불교아카데미 개강
3월 8~15일	출가열반재일 법회 및 8일 정진기도
3월 17일	1차 학업원만성취 100일 관음기도 입제
3월 15일	관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아간기도
3월 24일	관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주간기도

결사 대중화 선언... 공감대 확보가 관건

3년 맞은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 성과와 과제

조계종의 종단 내의 변화 운동인 '자성과 쇄신 결사'가 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국회 예산 날치기 통과로 정부와 방전 중인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011년 1월 26일 '법종단적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했다.

이후 종단 조직 내에 결사본부를 만들고 본 부장을 도법 스님을 모셨으며,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5대 결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사 운동은 '위로부터 개혁'이라는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역점적으로 추진한 종교평화선언은 '열린 종교관' 논쟁만을 불러일으킨 채 성사되지 못했다. 2012년 발생한 '승려 도박 사태'에서는 종단 쇄신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면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나마 사회의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무차대회와 아난법석 등 종단 안팎의 대화의 장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자성과쇄신결사본부 총괄부장 덕산 스님은 1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사를 통해 종단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승불교와 화쟁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결사자문위원회와 종단쇄신위원회의 정규제정과 의식개혁운동 제안과 종단 쇄신안 마련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본래 결사 운동 이외에도 화쟁위, 쇄신위와 종평위, 민주본 등의 사업을 병행해 운동 진행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었

다"면서 "또한 결사 대중의 조직화와 주체 역량의 결집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제34대 집행부의 시작과 3주년을 함께 맞은 자성과 쇄신 결사가 역점적으로 진행하려 하는 부분도 결사의 대중화이다. 결사본부만의 결사가 아닌 각급 중무기관과 사찰, 신도 등 사부대중을 결사의 주체로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결사추진본부는 올해 사업 기조

'붓다로 살자'를 실천의지로

화쟁순례, 종교평화선언 추진

'위로부터 개혁' 탈피 위해

사부대중을 운동 주체로 유도

공감·세부 방법론 제시 필요

를 '사찰과 함께, 사회 속으로'로 정했으며, '붓다로 살자'라는 대중 운동을 전개한다. 불자 개개인인 스님, 사찰이 자발적으로 수행과 보살행을 서원하고 실천하자는 의식개혁 운동인 '붓다로 살자'는 상반기에 직영사찰 등을 중심으로 결사 도량을 지정하고 활동할 방침이다.

덕산 스님은 "주 1회 '붓다로 살자' 걷기 명상, 서원 동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연수 교육, 신도 교육과 사찰 등의 각종 법회에서



2012년 8월 열린 노동자와 함께하는 무차대회.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대승불교적 접근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결사 주체 역량의 조직화는 실패했다.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에는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위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시작된다. 전국 각지를 순례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결사 대중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계 각 단체들이 참여해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월 20일 선언식을 개최하고 3월 3일에는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고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논란을 빚었던 '종교평화선언'은 재추진된다. 5월에 종교평화선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중정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중정 스님의 증명을 거쳐 9월에 발표한다는 것이 결사본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체적 사업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대중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기조와 실천 의지만으로 사부대중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승 스님은 "구호와 깃발만을 세우는 자세에서 벗어나 상층부부터 내용적으로 자성과 쇄신에 솔선수범해서 대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시급한 것은 진행 주체의 어설픈 결론과 행동 이전에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진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관심한 대중에 대한 비판도 제시됐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붓다로 살자'는 이시대의 새로운 불타관"이라고 평가하면서 "불자 지식인들의 결사 운동 동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결사 운동에 대한 무관심은 스님들의 범계행위보다 더 불교를 죽이는 일"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도 한국불교를 바로 세울 결사 운동의 동참이다. 사부대중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문화재 보수 시 사찰 자부담 '폐지' 해야"

조계종 본사주지협 23일 회의

문화재 제도 개선 '한 목소리'

총무원에 책임있는 역할 당부

"오는 3월 중 관계기관 협의"

문화재 보수 시 사찰의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도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회의(회장 돈판)는 1월 23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제31차 회의를 갖고 문화재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종단 차원의 대책도 요구했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회의는 종단의 중요 현안인 감사원의 문화재 보수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1시간 가깝게 토론했다. 특히 문화재 보수 시 전체 예산 중 사찰이 일직액을 부담하는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회의는 1월 23일 송광사에서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부담'과, 관공공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찰 자부담에 대해 한 스님은 "자부담 때문에 사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없애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주지 스님도 "감사원도 사찰 자부담 부분을 집중

적으로 보고 있다. 총무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문화재 보수 환경과 제도 법령 간의 괴리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회의 참가한 한 주지 스님은 "관 주도의 보수 공사는 사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문화재를 훼손시

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화재 보수에 쓸 목재를 건조시킬 시간도 부족한 데 늦어지면 지체부담을 물린다.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스님은 "공사 후 하자가 있어 업자를 불러도 회사가 없어졌다며 오지 않는다"며 "관공사는 120% 부실공사다. 정부의 눈리에 빠져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스님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는 중지됐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되고 있다. 3, 4월 중 한번 더 감사를 하고 5월께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찰의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3월 중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문화부에 실무진 2명을 채용해 문화재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스님들의 의견에 최대한 흡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4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계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생을 모집합니다.

교과과정					
학 과	교수요목	요 일	시 간	교 수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조인각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육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이기봉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마일운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심만춘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최원허 합장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02)392-3234, Fax 02)392-3239 홈페이지: www.okchunbud.kr/

■ 응시자격

-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 등 일반인
- ◆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 ◆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전형일정 : 2014년 1월 20일 ~ 2월 28일

■ 전 형 료 : 50,000원

■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독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승승려에 한하여 중직법계 응시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3.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4.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